

4 과학과 윤리

· 들어가기 전에 ·

이 단원이 수능에는?

- 과학 기술 윤리 파트에서 한 문항
- 정보 윤리 파트에서 한 문항 (대부분 독해형 문항으로 출제됩니다.)
- 자연과 윤리 파트에서 한 문항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 문항이 출제됩니다.

이 단원은 공부할 때는?

- 과학 기술 윤리 파트에서는 주로 앤스퍼스와 하이데거의 입장을 비교하는 문항이 출제됩니다. 따라서 앤스퍼스와 하이데거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분명하게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외에 요나스의 책임 윤리가 오랜만에 출제될 수도 있고, 베이컨의 과학 기술 낙관주의가 기습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모두 꼼꼼히 공부해 둡시다.
- 자연과 윤리 파트에는 주로 출제되는 사상가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칸트, 싱어, 레건, 테일러, 레오플드가 그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리스토텔레스, 데카르트, 슈바이처, 네스 같은 다른 사상가들이 수능에 출제될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겠지요. 따라서 수능에 잘 출제되지 않은 사상가들이더라도 기본 개념, 그리고 올해 연계 교재에 수록된 심화 개념 정도는 모두 정리를 잘 해 두어야 합니다.
- 자연과 윤리 파트의 경우, 인간 중심주의, 동물 중심주의, 생명 중심주의, 생태 중심주의 할 것 없이 모든 사상가가 동의하는 내용이 꽤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상가가 동의하는 내용을 반드시 잘 이해해 두시되, 동시에 ‘도덕적 고려 대상’과 ‘도덕적 행위 주체’의 표현적인 차이, 그리고 ‘수단적 가치’와 ‘내재적 가치’를 구분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잘 알아둡시다. 결국 자연과 윤리 파트는 개념이 어렵다기보다는, 말장난이 심한 파트입니다. 얼마나 개념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고 얼마나 현장에서 독해를 정확하게 잘 해 내는지가 자연과 윤리 문항의 정답 여부를 가를 것입니다. 얼마나 사상가들의 원천을 많이 찾아 읽었는지가 아니라요!

Step 1. 실전 개념 포 파이널

이제 기본 개념은 가烂!

실전에서의 문제 풀이를 위한 심화 개념과 변별 포인트, 그리고 실수를 미리 막아주는 오늘의 오답 노트까지!

* 과학 기술 윤리

1. 앤스퍼스 VS 하이데거

— 차이점

결국 앤스퍼스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맥락을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기술 그 자체'이냐? 아니면 '기술의 활용으로 인한 결과'이냐? 즉, "기술에 그 자체로 내재되어 있는 것인가?" 아니면 "기술로 인해 기술의 외부에서 일어나는 작용이냐?"

야스퍼스 : 기술 그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며, 가치 중립적인 수단이자 공허한 힘일 뿐임

→ 기술 자체에 대한 윤리적 가치 판단(선/악)은 불가능함

하이데거 : 기술의 본질은 수단적 속성이 아니라 탈은폐이며, 기술은 탈은폐를 통해 인간과 자연의 존재 의미, 인간과 자연이 관계맺는 방식을 규정하고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기술을 가치 중립적으로 고찰하는 것은 위험함

→ 언제나 기술 자체에 대한 윤리적 가치 판단이 필요함

— 공통점

① 기술은 인간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음

②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인류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음

③ 그렇기 때문에 기술의 활용 방향과 맥락에 대해 윤리적 성찰이 필요함

01 [21-09-08] ① 하이데거 : 기술 그 자체는 가치와 무관한 사실의 영역인가? ()

02 [21-09-08] ② 앤스퍼스 · 하이데거 : 기술은 그 자체로 지향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

03 [21-09-08] ③ 앤스퍼스 · 하이데거 : 기술은 인간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가? ()

04 [25-06-05] ㄷ. 앤스퍼스 : 기술을 선택하고 그 활용을 결정하는 기준은 가치중립적이다. ()

05 [25-06-05] ㄹ. 하이데거 · 앤스퍼스 : 기술은 인간의 목적을 위한 수단임을 부인할 수 없다. ()

06 [20-11-19] ③ 하이데거 : 현대 기술의 본질에 대한 자각과 비판적 성찰이 필요하다. ()

07 [23-11-07] ③ (앤스퍼스가 보기에 하이데거는) 기술을 어떻게 이용할지에 대한 윤리적 성찰이 불필요함을 간과한다. ()

08 [23-11-07] ④ (앤스퍼스가 보기에 하이데거는) 기술은 인간이 설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일 뿐임을 간과한다. ()

09 [24-09-06] ② 앤스퍼스 : 기술의 활용 방안은 인간의 결정으로부터 독립적일 수 있다. ()

10 [24-09-06] ④ 하이데거 : 기술은 인간이 자연과 관계 맺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 없다. ()

11 [26-06-03] ① 앤스퍼스 : 기술은 인간의 개입이 없다면 인간에게 해가 될 수 없다. ()

12 [26-06-03] ② 앤스퍼스 : 기술의 활용 방향을 결정할 때 가치 판단을 배제해야 한다. ()

13 [26-09-17] 기술은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그런데 기술의 한계는 이러한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기술이 행복과 불행 모두에 관여할 수 있지만 그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라는 사실에 있다. 그러므로 기술은 지도가 필요하며 인간 자신이 지도자로서 재발견되어야 한다. 인간은 자신의 욕구를 명백히 해야 하고 검토해야 하며 그러한 욕구의 서열을 규정해야 한다. []

14 [26-09-17] ① 앤스퍼스 : 기술 자체는 그 기술을 실현하는 인간으로부터 독립된 존재이다. ()

15 [26-09-17] ③ 앤스퍼스 : 기술에 내재한 부도덕한 속성을 성찰하여 기술을 지도해야 한다. ()

16 [26-09-17] ④ 앤스퍼스 : 기술 자체의 독자적 목적으로 인해 기술의 한계가 발생하게 된다. ()

17 [26-09-17] ⑤ 앤스퍼스 : 기술의 본질은 인간의 욕구로 인해 선 또는 악으로 변화될 수 있다. ()

2. 요나스의 ‘책임’

① 대상 : 의도한 / 의도하지 않은 / 예상한 / 예상하지 못한 / 사전적 / 사후적 책임 모두

② 주체 : 현세대

③ 대상 : 현세대, 미래 세대, 동식물, 자연 전체

④ 특징

— **공포의 발견술** : 희망보다는 과학 기술의 부정적 결과에 대한 공포에서 도출됨

— 현세대는 미래 세대와 자연에 대하여 **일방적, 절대적, 비호혜적 책임을 짐**

— 책임질 수 있다는 사실(가능성)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당위(의무)가 도출됨

18 [22-09-04] ② 요나스 : 인간의 책임 범위가 자연에 대해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

19 [22-09-04] ④ 요나스 : 현세대와 미래 세대 사이에 호혜적 책임이 있어야 한다. ()

20 [21-11-11] ㄴ. 요나스 : ‘할 수 있다’는 능력에 근거해서 ‘해야 한다’는 책임이 발생한다. ()

21 [21-11-11] ㄹ. 요나스 : 현세대와 미래 세대는 삶의 지속을 위해 상호 간에 의무를 가진다. ()

22 [22-11-12] ② 요나스 : 과학 기술의 비의도적 결과는 책임의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

23 [22-11-12] ④ 요나스 : 권리를 주장하는 존재 외에도 현세대가 책임져야 할 대상이 있는가? ()

24 [24-11-18] ① 요나스 : 인간은 호혜적 관계를 맺는 존재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 ()

25 [21-06-05] ㄱ. 요나스 : 과학 기술 연구의 자유는 무제한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

26 [21-06-05] ㄴ. 요나스 : 과학 기술자는 연구의 장기적 결과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 ()

27 [24-06-13] ③ 요나스 : 객관적 사실을 다루는 과학 기술이 윤리의 나침반임을 생각하라. ()

28 [25-09-08] ① 요나스 : 새로운 윤리에 따른 책임의 범위는 전 지구적으로 확장된다. ()

29 [25-09-08] ② 요나스 : 미래 세대에 대한 현 세대의 책임은 총체적이고 호혜적이다. ()

30 [25-09-08] ③ 요나스 : 발생하지 않은 사태는 윤리적 고려와 예측의 대상이 아니다. ()

31 [25-09-08] ④ 요나스 : 책임 윤리는 행위되어야 할 것에 대한 책임을 요청하지는 않는다. ()

32 [25-09-08] ⑤ 요나스 : 행위의 결과에 대한 공포는 현 세대의 책임 의식을 약화시킨다. ()

33 [25-11-06] ㄹ. 요나스 : 선한 결과가 예견되는 기술만이 도덕적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다. ()

34 [21-03-06] ③ 요나스 : 인간에 대한 의무는 자연에 대한 의무로 대체되어야 한다. ()

35 [22-07-20] ㄹ. 요나스 : 인간은 행해진 것뿐만 아니라 행위 해야 할 것에 대한 책임도 있다. ()

36 [22-10-02] ③ 요나스 : 인간은 사전적 책임이 아니라 사후적 책임을 중시해야 한다. ()

37 [21-07-20] ㄹ. 요나스 : 이성을 지니지 않은 존재도 책임의 주체와 대상이 되어야 한다. ()

38 [24-03-11] ③ 요나스 : 현세대에게는 미래 세대에 대한 일방적인 윤리적 책임이 있다. ()

사실상 요나스의 입장에서 책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책임은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현세대는 질 수 있는 모든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참고로 책임의 ‘주체’와 ‘대상’이 동시에 되는 것은 현세대뿐입니다.

* 지·연과 윤리

예를 들어 동물 중심주의 사상가라고 해서 동물을 도덕 능력자 또는 도덕적 행위의 주체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동물 중심주의 사상가에게 동물이란 도덕적 행위의 주체가 아니고 도덕 무능력자이지만, 동시에 도덕적 고려 대상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인간 중심주의 사상가들과 탈인간 중심주의 사상가들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예컨대 도덕적 행위 능력이 있는 존재는 오직 인간뿐이라는 사실에는 모두가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인간 중심주의 사상가들은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 의무의 대상 역시 인간만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반면 탈인간 중심주의 사상가들은 '도덕적 행위 능력 여부와는 무관하게' 인간 아닌 존재들도 직접적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해야 하는 것이, 칸트가 동물을 학대를 반대했다고 해서 칸트가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했다거나, 동물을 도덕적 고려의 대상에 포함시켰거나 하는 선지에 낚이는 경우가 있는데, **칸트는 엄연히 인간 중심주의 사상가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칸트는 인간만의 도덕적 가치, 권리, 지위를 인정합니다. 다만, 동물에는 도덕적 지위가 없지만, 그래도 인간에 대한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는 동물을 학대하면 안 된다고 보는 것이지요. **아초에 칸트가 동물을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보는 거면 칸트도 동물 중심주의 사상가였게요?**

한편, '가치'가 아니라 '권리'의 경우에는, 도덕적 고려 대상만 가질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가치와 달리, 권리 중에는 수단으로서의 권리, '수단적 권리' 같은 것은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치'와 '권리'를 구분하여 생각해 주어야 합니다.

1. '도덕적 고려 대상' VS '도덕적 행위 주체'

도덕적 고려 대상 = 도덕적 존중 대상 = 도덕적 의무 대상 = 도덕적 가치와 권리를 지니는 존재 = 도덕적 지위를 지니는 존재 = 도덕적으로 대우받아야 하는 존재
→ 사상가마다 범위가 다름 (인간 / 동물 / 생명 / 생태 중심주의)

도덕적 행위 주체 = 도덕적 의무 주체 =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 = 이성적 존재 = 자율적 행위 주체 = 도덕 능력자
→ 모든 사상가의 입장에서 오직 인간뿐

- [01] [20-06-06] ③ (칸트가 보기에 테일러와 레오플드는) 도덕적인 행위의 주체는 오직 인간뿐이라는 점을 간과한다. ()
- [02] [22-09-15] ㄴ. 싱어 · 레오플드 : 이성적 능력을 기준으로 도덕적 지위가 결정되지는 않는다. ()
- [03] [24-06-15] ㄴ. 테일러 : 이성적 삶의 주체만이 생명체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지닌다. ()
- [04] [25-06-09] ㄱ. 레건 · 테일러 : 도덕적 행위 능력이 있어야만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
- [05] [22-11-14] ㄱ. 칸트 · 레건 · 테일러 : 어떤 개체가 생명을 지녀야만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있다. ()
- [06] [24-11-15] ㄴ. 싱어 : 쾌고 감수 능력은 도덕적 행위자임을 판별하는 결정적 기준이다. ()
- [07] [24-11-15] ㄷ. 레오플드 : 생태계뿐만 아니라 개별 생명체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일 수 있다. ()
- [08] [20-11-16] ⑤ (칸트가 보기에 레건과 테일러는) 도덕적 행위 주체들의 도덕적 지위가 서로 평등함을 간과한다. ()
- [09] [25-11-09] ㄱ. 칸트 : 도덕적 행위 주체성은 도덕적 지위 결정의 유일한 요인이다. ()
- [10] [19-07-14] ㄷ. 테일러 · 레오플드 : 도덕적 존중의 대상을 인간 개체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 ()
- [11] [19-03-04] ㄹ. 테일러 · 레건 · 싱어 : 도덕적 행위 능력이 없는 존재도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있다. ()
- [12] [20-07-19] ③ (칸트가 보기에 싱어와 레건은) 인간만이 도덕적 의무를 따를 수 있는 존재임을 무시한다. ()
- [13] [24-03-10] ㄱ. 칸트 · 레건 : 목적 그 자체가 될 수 있는 존재라면 도덕 행위자로 간주해야 한다. ()
- [14] [24-03-10] ㄹ. 칸트 · 테일러 · 레건 : 생명을 지니고 있는 개체만이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 [15] [23-07-19] ㄷ. 레오플드 : 유기체가 아닌 존재도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 [16] [20-03-11] ③ 테일러 :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생명은 도덕적 지위를 지니는가? ()

2. '가치'

도구적 가치 :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수단)로서 유용할 때 부여되는 가치
→ 도덕적 고려 대상이 아니어도 가질 수 있음

내재적(본래적) 가치 : 어떤 존재에 그 자체로 내재되어 있는 존엄한 가치
→ 도덕적 고려 대상만 가질 수 있음

오늘의 오답 노트

선지에 “가치”라는 말이 등장했을 때는!

원래는 ‘비도구적 가치’, ‘목적 그 자체로서의 가치’, ‘인간의 가치 평가로부터 독립적인 가치’ 같은 말을 보면 머리부터 새하얘졌는데... 잘 생각해 보면, 어차피 ‘가치’란 도구적 가치이거나 수단적 가치이거나 둘 중 하나인 것이다.

비도구적 가치 : 도구로서의 가치가 아닌 가치라는 뜻이므로, 내재적 가치!

목적 그 자체로서의 가치 : 단순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목적 그 자체로 존중받을 가치라는 뜻이니, 내재적 가치!

인간의 가치 평가로부터 독립적인 가치 : 잘 생각해 보면, 도구적 가치는 인간의 가치 평가에 의존한다. 인간이 그 존재를 보고 ‘유용하다’라는 가치 판단을 내릴 때만 도구적 가치가 부여되니까. 반면 내재적 가치는 그 존재에 그 자체로 내재되어 있으므로, 인간의 가치 평가에 의존하지 않지. 따라서 역시나 내재적 가치!

- 17 [20-06-06] ⑤ (칸트와 테일러가 보기에 레오플드는) 모든 생명체가 내재적 가치를 지니는 것은 아님을 간과한다. ()
- 18 [22-06-10] ㄱ. 칸트 : 인간 이외의 존재에게는 어떠한 가치도 부여되지 않는다. ()
- 19 [20-11-16] ③ (테일러가 보기에 칸트는) 도덕적 행위 능력이 없는 존재도 모두 내재적 가치를 지님을 간과한다. ()
- 20 [24-06-15] ㄹ. 테일러 : 어떤 생명체의 존속은 그 생명체의 본래적 가치에 의해 정당화된다. ()
- 21 [20-09-10] ㄴ. 레건 : 한 살 이상의 정상적인 포유동물은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
- 22 [22-11-14] ㄴ. 칸트 · 레건 : 동물은 인간의 가치 평가에서 독립적인 가치를 지닐 수 없다. ()
- 23 [21-06-15] ㄴ. 레건 · 칸트 : 목적 그 자체로서 가치를 지닌 존재는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다. ()
- 24 [23-09-10] ㄹ. 레오플드 · 테일러 · 레건 : 비도구적 가치를 지닌 비이성적 존재를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
- 25 [26-06-10] ㄱ. 테일러 : 식물은 인간의 가치 평가에서 독립적인 가치를 지닐 수 없다. ()
- 26 [24-03-10] ㄷ. 테일러 · 레건 : 인간의 가치 평가에서 독립하여 가치를 지닌 존재의 이용은 해악보다 이익이 크다면 정당화된다. ()
- 27 [23-03-15] ㄱ. 칸트 : 생명체 중에서 오직 인간만이 가치를 지닌 존재인가? ()
- 28 [24-07-19] ㄴ. 레오플드 : 자연 그 자체는 인간의 이익과 무관하게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
- 29 [23-07-19] ㄴ. 칸트 · 테일러 : 모든 생명체와 달리 생명 공동체 그 자체는 내재적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 ()
- 30 [21-10-05] ㄱ. 네스 : 생명체는 인간의 평가로부터 독립된 가치를 지니는가? ()
- 31 [22-04-11] ㄹ. 레오플드 · 테일러 · 칸트 : 도덕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라도 가치가 부여될 수 있다. ()

3. 자연과 윤리 파트 사상가들의 공통점

- ① 도덕적 행위 주체 = 이성적 존재 = 자율적 행위 능력자 = 오직 인간뿐
- ② 생명체를 죽이는 행위가 허용될 수 있음
- ③ 인간과 비인간 존재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가능함
- ④ 생태계에 개입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음
- ⑤ 자연을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음
- ⑥ 어떤 존재를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음

② 대표적인 경우가 ‘자기 방어’를 위한 경우입니다. 산에 갔다가 곰을 만났습니다. 곰은 사람을 끊어...! 곰이 나를 끊어죽이려고 하는데, 예컨대 생명 중심주의 사상가 테일러라고 해서 “곰은 도덕적 존중 대상이니까 곰을 죽이면 안 됩니다. 차라리 님이 죽으십시오.”라고 하겠습니까? 엄연히 나도 생명체이고, 인간도 도덕적 존중 대상인걸요? 이럴 때는 부득이 하게 살생하는 것을 모든 사상가가 허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③ 예컨대 아무리 동물 중심주의 사상가라고 해서 배고픈 인간에게 리먼을 끊여 주듯 배고픈 동물에게도 리먼 한 그릇 끊여 줄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상가의 공통점입니다만, 특히 싱어가 이를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포인트의 출제는 보통 싱어의 입장을 겨냥하여 이루어집니다. 예컨대 벤다이어그램형 문항에서는, 싱어의 입장을 제외하고 다른 두 사상가의 입장에서 ‘인간과 동물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가능하다’라고 해 놓고, 싱어의 입장에도 포함이 되므로 적절하지 않은 선지에게 된다는 식입니다.

④, ⑤ 상식적으로, 인간이 생태계에 아예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거나, 인간이 어떤 경우에도 자연을 경제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인간은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상 자연과 윤리 문항에서 '~을/를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같은 표현이 등장한다? 더 볼 것도 없이 무조건 X입니다.

다만 레건은 조금 예외인 것이, 레건은 인간과 동물을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인간과 동물을 '자원'으로 이용하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레건이 생각하기에 '자원시'는 단순히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의미가 아닌, 수단으로 '만' 본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레건을 제외한 다른 사상가들은 자원시와 수단시 사이에 의미의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즉 다른 사상가들은 모두 자원시도 되고, 수단시도 된다고 봅니다.

오늘의 오답 노트

"어떤" 존재이든 "모두"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도구적(수단적) 가치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아니어도 가질 수 있다고 해서, 그러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아닌 존재들만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은 또 아니었다. 도덕적 고려 대상인 존재들도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그들을 '단순히' 수단으로 '만' 이용해서는 안 되며,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것이 사상가들의 입장이었다!

① 도덕적 고려 대상 X: 수단으로 '만' 이용하는 것이 가능

② 도덕적 고려 대상 O: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가능, 수단으로 '만'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
즉, 수단으로 이용하는 와중에도 언제나 동시에 목적 대우 필요

- 32 [20-09-10] 르. 레오플드 · 레건 · 테일러 : 인간 상호 간의 의무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
- 33 [21-06-15] 그. 싱어 : 이익 관심을 지닌 모든 개체는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
- 34 [23-09-10] 그. 레오플드 · 테일러 · 레건 : 인간이 생명 공동체에 개입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다. ()
- 35 [23-09-10] 르. 레오플드 · 테일러 · 레건 : 비도구적 가치를 지닌 비이성적 존재를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
- 36 [23-11-10] 뉴. 테일러 · 칸트 · 싱어 : 종(種)이 다른 개체를 서로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 ()
- 37 [25-09-06] 뉴. 레오플드 · 칸트 : 생명 없는 존재의 파괴가 도덕적으로 정당한 경우는 없다. ()
- 38 [25-11-09] 르. 칸트 · 레오플드 · 싱어 : 자연물을 파괴하는 인간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
- 39 [26-09-14] 그. 싱어 :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모든 존재는 차별 없이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
- 40 [22-09-15] 그. 칸트 · 싱어 · 레오플드 : 자연을 경제적 관점에서 이용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
- 41 [22-09-15] 르. 칸트 · 싱어 · 레오플드 : 동물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가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다. ()
- 42 [24-06-15] 뉴. 테일러 · 레오플드 : 이성적 삶의 주체만이 생명체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지닌다. ()
- 43 [25-06-09] 르. 레건 · 테일러 · 칸트 : 수단으로만 이용되어선 안 되는 존재는 도덕적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 44 [23-04-15] ⑤ 싱어 · 테일러 : 인간을 위한 자원으로 동물을 활용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 ()
- 45 [22-07-17] 뉴. 레오플드 : 집합적 유기체로서의 대지는 효용 창출을 위한 자원으로 사용될 수 없다. ()
- 46 [23-07-19] 그. 칸트 · 테일러 · 레오플드 : 인간이 식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있다. ()
- 47 [24-07-19] 르. 칸트 · 레오플드 : 욕구를 지닌 비이성적 존재가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
- 48 [23-03-15] ㄷ. 싱어 : 동물을 이용하는 인간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가? ()
- 49 [24-04-10] 그. 테일러 · 싱어 : 비이성적 개체를 해치는 행위가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는가? ()
- 50 [24-04-10] 르. 싱어 : 유정적 존재의 특성에 따라 도덕적 배려의 방법은 달라질 수 있는가? ()
- 51 [20-07-19] ⑤ (싱어가 보기에 칸트는) 동물은 인간과 똑같이 대우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간과한다. ()
- 52 [19-04-15] 그. 레오플드 · 싱어 : 인간은 동식물을 삶에 필요한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 ()
- 53 [19-04-15] 뉴. 싱어 : 유정(有情)적 존재의 특징에 따라 배려 방법은 달라질 수 있는가? ()
- 54 [20-04-10] 뉴. (레건이 보기에 싱어는) 성장한 포유동물은 결코 인간을 위한 자원으로 대우받아서는 안 됨을 간과 한다. ()
- 55 [24-10-10] 그. 칸트 : 동물은 수단으로 간주되지만 인간은 수단으로 간주될 수 없다. ()
- 56 [24-10-10] 르. 칸트 · 테일러 · 레오플드 : 인간 이외의 개체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가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다. ()

4. 싱어 VS 레건

— 공통점 : 동물 중심주의

- ①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도 도덕적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음
- ② '모든' 동물이 도덕적 고려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 ③ 인간과 동물은 동등한 도덕적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함

— 차이점

- ① 도덕적 고려 대상의 판별 기준은 무엇인가?

- 싱어 : 쾌고 감수 능력 (= 이익 관심 = 유정성 = 감각)
 - 레건 : 삶의 주체
→ 쾌고 감수 능력을 포함하여, 기억 능력, 자의식 등을 갖춘 존재

즉 싱어는 쾌고 감수 능력을 도덕적 고려 대상이 되기 위한 '유일한' 조건으로 간주하나, 레건은 쾌고 감수 능력이 도덕적 고려 대상이 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맞아도 '유일한' 조건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 ② 동물을 도덕적으로 고려해 주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싱어 : 공리의 원리
 - 레건 : 의무론(내재적 가치에 대한 무조건적 존중)

- ③ 동물 실험은 허용될 수 있는가?

- 싱어 : 일반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하고, 인류에게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주며,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
 - 레건 : 절대 허용 불가능

57 [23-06-19] ㄱ. 싱어 : 동물에 대한 인간의 행위는 공리의 원리에 근거해야 한다. ()

58 [16-09-10] ㄱ. 레건 : 쾌고 감수 능력은 동물의 이익 고려를 위한 충분조건이다. ()

59 [23-11-10] ㄹ. 싱어 : 인간 아닌 감각 없는 개체 중 도덕적 지위를 지닌 존재는 없다. ()

60 [22-10-15] ④ (테일러가 보기에 싱어는) 어떤 개체가 이익 관심을 갖지 않아도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있음을 간과한다. ()

61 [20-04-10] ㄹ. (레건이 보기에 싱어와 테일러는) 유정(有情)적 존재라도 도덕적 지위를 갖지 못할 수 있음을 간과한다. ()

62 [19-03-04] ㄱ. 레건 · 싱어 : 쾌고 감수 능력이 동물의 이익 고려를 위한 유일한 조건은 아니다. ()

63 [20-07-19] ④ 레건 : 인간 외의 일부 유정물도 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 ()

64 [24-03-10] ㄴ. 레건 : 쾌고 감수 능력은 도덕적 지위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① '해악 금지의 의무'가 인간의 4대 의무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듯, 이 의무는 절대 예외가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 의무가 아닙니다. 테일러 역시 자기 방어를 위한 경우, 생명체를 살생하는 것을 긍정합니다.

② '불간섭의 의무'는 테일러와 레오플드를 가르는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생태 중심주의 사상가인 레오플드는 생태계 전체의 안정성과 균형을 위해 인간이 생태계에 개입하는 것을 적극 허용하지만, 생명 중심주의 사상가인 테일러가 오히려 개별 생명체들의 선을 보호하기 위해, 인간이 생태계에 함부로 간섭하여서는 안 됨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물론, 역시나 앞에서 모든 사상가의 공통점에서 살펴보았듯, 테일러 역시 예외적으로 인간이 생태계에 개입하는 것을 긍정합니다.

③ '신의의 의무'에서 기만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은, 예컨대 뒷을 놓아 야생 동물을 잡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5. 테일러의 '인간의 4대 의무'

- ① 해악 금지의 의무(불침해의 의무) : 인간은 생명체를 해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 ② 불간섭의 의무 : 인간은 생태계를 함부로 침범하거나 조작, 통제, 개조하려고 하여서는 안 됨

- ③ 신의의 의무(성실의 의무) : 인간은 야생 동물을 기만하여 그들의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 ④ 보상적 정의의 의무 : 인간이 어쩔 수 없이 생명체에게 해악을 준 경우, 인간은 그들에게 보상을 해 주어야 함

65 [23-11-10] ㄱ. 테일러 : 인간은 생명체를 해치지 않을 절대적 의무를 실천해야 한다. ()

66 [24-06-15] ㄱ. 테일러 : 인간이 아닌 생명체에 대한 해악 금지 의무는 그 생명체의 내재적 선에 근거한다. ()

67 [20-09-10] ㄱ. 테일러 : 인간은 생태계에 간섭해서는 안 되는 의무를 지닌다. ()

68 [20-04-10] ㄷ. (테일러가 보기에 싱어와 레건은) 인간이 생명체에 해를 끼쳤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적 정의의 의무를 지님을 간과한다. ()

69 [23-10-11] ㄱ. 테일러 : 인간은 이성적 존재와 동식물에게만 신의의 의무를 져야 한다. ()

Step 2. 연계 교재 고난도 제시문

수능 전에 이 제시문들은 꼭 보고 들어가자!
2026학년도 수능특강·수능완성 고난도 제시문 모음!

어떻든 분명한 것은 기술이란 수단일 뿐이지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 (중략) … 기술은 그러한 기술을 실현시키는 것과는 독립해 있는 자립적인 존재로서 일종의 공허한 힘이며 결국은 목적에 대한 수단인 것이다. 어떻게 기술이 인간과 전혀 무관하게 광기를 부릴 수 있다는 말인가? 혹은 어떻게 인간을 포함한 전 지구가 오직 유일한 거대한 공장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 (중략) … 인간 오성은 그러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서 구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 존재에 대한 우리의 의식은 그러한 사태란 전체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말할 것이다.

①

현대의 기술이 산출한 행위들의 규모는 너무나 새롭고, 그 대상과 결과가 너무나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전통 윤리의 틀로서는 이 행위들을 더 이상 파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심상치 않은 상황의 변화, 위험이 미칠 수 있는 전 지구적 범위, 그리고 인간의 몰락 과정에 대한 징조를 통해서 비로소 윤리적 원리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들로부터 새로운 권력에 대한 새로운 의무가 도출될 수 있는데, 이 의무는 책임이라는 개념을 통해 요약될 수 있습니다.

②

현대 기술의 본질은 인간을 탈은폐의 길로 보낸다. 인간에 대한 위협은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기술의 장치와 장비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본래적인 위협은 이미 인간을 그 본질에서 갉아먹고 있다.

③

기술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권력을 증대시킨다. 그리고 이 권력은 장차 태어날 자들에 대한 우리의 권력도 증대시킨다. 이 권력은 일방적이고 맹목적이므로 이로 인해 새롭게 등장하는 문제를 책임의 원칙을 바탕으로 해결해야 한다.

④

기술의 본질은 결코 기술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가 기술적인 것만을 생각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데에만 급급하여 그것에 매몰되거나 그것을 회피하는 한, 기술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것도 그 때문이다. 우리가 기술을 열정적으로 긍정하건 부정하건 관계없이 우리는 어디서나 부자유스럽게 기술에 불들려 있는 셈이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는 기술을 중립적인 것으로 고찰할 때이며, 이 경우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기술에 내맡겨진다. 왜냐하면 현대에 와서 특히 사람들이 옳다고 신봉하는 이러한 사고방식은 우리를 전적으로 기술의 본질에 대해 맹목적이게 하기 때문이다.

①

기술이 도구라는 말은 사실이지만 기술의 본질을 드러내 주는 표현은 아니다. 기술은 기술을 사용하는 인간과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기술의 본질은 인간이 세계와 맺는 관계를 규정하는 데 있다. 발달한 현대 기술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부품으로 보게 한다.

②

우리는 원하는 것보다 원하지 않는 것을 더 잘 안다.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새로운 윤리학은 희망보다는 두려움을 논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 (중략) … 행해야 할 것과 관련된 책임 개념에 따르면, 현재의 행위로 인해 발생할 사태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사태의 의존자인 미래 세대는 명령자가 되고, 권력자인 현세대는 의무자가 된다.

③

기술을 활용하여 자연에 조작을 가했을 때가 방임했을 때보다 자연의 비밀이 훨씬 더 잘 드러난다. 위대한 발견은 오직 기술 때문에 가능하며,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권은 오직 기술과 학문에 달려 있다.

④

전통 윤리학의 모든 도덕적 명령과 격률은, 그것이 내용적으로 아무리 상이하다고 할지라도 행위의 직접적인 영역에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 “너의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다른 사람이 너에게 행하기를 원하는 바를 그에게 행하라.” … (중략) … “너의 이웃 사람을 언제든지 수단으로 대해서는 안 되며, 항상 목적 그 자체로서 대하라.” 등등. 이 모든 격률에서 행위자와 그의 행위의 대상이 되는 타인은 현실의 공통적인 참여자라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 (중략) … 인간 행위의 새로운 유형에 적합하고 새로운 유형의 행위 주체를 지향하는 명법은 대충 다음과 같을 수 있다. “너의 행위의 효과가 지상에서의 진정한 인간적 삶의 지속과 조화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부정적 형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너의 행위의 효과가 인간 생명의 미래의 가능성에 대해 파괴적이지 않도록 행위하라.”

①

인간의 지식과 힘을 하나로 합쳐야 하는 이유는 원인을 밝히지 못하면 어떤 효과도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자연은 오로지 복종함으로써만 복종시킬 수 있다. 인간은 자연의 질서에 대해 관찰하고 고찰한 것만큼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②

우리가 탐구하는 윤리는 아직 존재하고 있지 않은 것과 연관되며, 이 윤리가 제시하는 책임 윤리는 권리와 호혜성의 모든 이념과는 상관이 없어야 한다. 그것은 앞으로 존재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근거로 성립하는 새로운 윤리이다.

③

현대 기술은 모든 형태의 행위에 적용이 가능했던 전통 윤리학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윤리적 사유의 노력을 요구한다. 전통 윤리학은 인간적 의무의 대상을 인류로 상정하고, 인간적 선의 장려, 타인의 권리 및 타인에 대한 관심의 존중 등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지구상에서 으뜸가는 권력을 소유한 자로서 인간은 더 이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해서는 안 되며, 다른 존재자의 생명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권리까지 인정해야 한다. 권력을 특징으로 하는 이 시대의 최고 가치는 바로 책임이며, 책임의 대상은 인류의 미래이다. 인류의 미래에 대한 책임은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두려움을 의무로 받아들이고 일상화하도록 만든다.

④

우리가 만든 물을 마시면 건강이 증진되고 생명이 연장됩니다. 우리는 유성의 체계와 운동을 모방한 거대한 건물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눈, 비, 우박 등을 인공적으로 내리게 하며, 천둥과 번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생물체를 번식시킬 수 있습니다. 동물의 손상된 부위를 재생하는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한번 먹고 나면 오랫동안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음식도 개발하였습니다. 우리는 태양을 모방한 발열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빛을 먼 거리까지 보낼 수 있고, 빛을 이용하여 사물의 크기, 부피, 움직임, 색상을 왜곡되게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①

인간의 인간에 대한 책임이 일차적이다. 모든 책임의 원형은 인간에 대한 인간의 책임이다. 그 누군가에 대해 책임이 있는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면서 또한 그 누군가의 책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호혜성은 종적(種的)으로 항상 존립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부모의 보호라는 원천적 책임을 우선 스스로 경험한다. 이 근본 패러다임에서 살아 있는 생명체에 대한 책임의 결합이 가장 확실하게 분명해진다.

②

벤살렘 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일종의 과학 기술 연구 기관인 살로몬의 집이 있다는 것이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직분으로 세분화된 과학자들이 전 세계에서 수집한 장치를 사용해서 경험적 지식을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인과 관계를 파악해 낸다. 그런 다음 파악된 인과적 지식을 활용해 사람들의 삶에 도움이 될 만한 유용한 장치를 만들어 낸다. 벤살렘 섬의 원주민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국가가 조직적 연구를 후원함으로써 과학적 지식과 기술적 인공물들을 생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 (중략) … 과학자가 주도하는 지식 기반 사회에서 이상 사회가 구현될 수 있다.

③

인간의 야망은 세 등급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자신의 세력을 자기 나라 안에서 확대하려는 사람의 야망인데, 이것은 하등의 천박한 야망이다. 다음은 자기 나라의 권력과 지배권을 인류 전체로 확대하려고 하는 사람의 야망인데, 이것은 품위는 좀 있지만 여전히 탐욕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야망이다. 그런데 인류 자체의 권력과 지배권을 자연 전체에 대해 수립하고 확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야망은 앞의 두 가지 야망에 비하면 더할 나위 없이 건전하고 고귀한 것이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권은 오직 기술과 학문에 달려 있다.

④

우리는 살인이 없었다면 아마 생명의 신성함을 알지 못했을지도 모르며, 또 “살인하지 말라.”라는 도덕적 명령이 이 신성함을 분명하게 보여 주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거짓이 없었다면 진실의 가치를 알 수 없었을지도 모르며, 부자유가 없었다면 자유를 알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 (중략) … 위협이 알려지지 않는 한 우리는 무엇을 왜 보호해야 할지를 알지 못한다. 따라서 ‘무엇 때문에’에 관한 지식은 모든 논리학이나 방법과는 반대로 ‘무엇에 대해’ 경악하는가에서 발원한다. 이 경악의 대상은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나타나며, 그것은 지식에 선행하는 감정의 반향을 통해 이 대립으로 촉발되는 가치를 볼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친다. … (중략) … 우리에게는 악(惡)의 인식이 선(善)의 인식보다 무한히 쉽다. 악의 인식은 더 직접적이며 설득력이 있고 의견 차이에 별로 시달리지 않으며 무엇보다 가식적이지 않다. … (중략) … 따라서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가를 알아내기 위해 도덕 철학은 우리의 희망보다는 공포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①

타인의 이해관계 전체를 담보로 거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은 최대의 선을 도출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라 오로지 최대의 악을 저지하기 위한 경우라는 사실을 말하는데, 이에 따르면 기술론의 과감한 모험은 허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기술론의 모험은 존립하고 있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취된 것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즉 가장 야심적인 경우에 지상의 낙원을 이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진보를 위해 실행되기 때문이다. … (중략) … 행위의 결과란 불확실하다. 따라서 그 결과를 알 수 없는 것에 대해 우리는 보증을 서야 하고 이 과정은 행위에서 책임의 조건이다. 공포는 행위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하도록 이끌어 주는 책임의 본질적 속성이다. 책임은 다른 존재에 대한 염려이며, 이 염려는 존재가 위협을 받을 때 근심이 된다. 책임 있는 행위를 하게 되면 그 행위를 통해 던지는 질문 안에 이 공포가 포함된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책임은 명확해진다. 그러므로 새롭게 일어날 공포를 알아내는 발견술이 필요하다.

②

늙은 말이나 개의 오랫동안 수행한 봉사에 대한 감사마저도 간접적으로는 인간의 의무에 속한다. 곧 이러한 동물에 관련한 감사의 정은 그러나 직접적으로 볼 때는 언제나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일 따름이다.

③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사실적 차이를 근거로 인간이 동물을 비도덕적으로 대우해서는 안 된다.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존재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

④

삶의 주체인 동물의 내재적 가치보다 인간의 내재적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는 이성적인 근거는 없다. 내재적 가치를 지닌 존재는 인간, 동물 할 것 없이 같은 정도의 내재적 가치를 지녔다.

①

감각적 존재들은 의식을 가지는 한, 그것들의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이익, 가능한 한 많은 쾌락과 적은 고통을 경험한다는 이득을 갖는다. 감각은 한 존재를 이익 평등 고려의 영역에 들어가도록 하는 데 충분하다. 그러나 이것이 그 존재가 계속 살고자 하는 인격적 이익을 갖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②

동물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고통스러운 유전자 조작은 당연히 재고해야 합니다.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 이지도 않은 고기나 우유를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이런 기술은 비도덕적 이므로 금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지만 저는 절대주의자가 아니라 공리주의자입니다. 따라서 제 결정이나 도덕적 선택은 그 결과와 가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남아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동물을 이용하는 것이라면, 저는 동물을 이용하는 실험이나 연구를 무조건 금지하자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연구의 모든 단계에서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면, 동물 이용을 정당화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연구자들은 동물을 이용하는 연구의 목표가 중대한 질병의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③

기계는 목표 지향적인 활동을 보이지만, 독립적인 존재로서 고유의 선을 지니지 않는다. 그들의 ‘선’은 인간의 목적에 효과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해 ‘증진’된다. 반면에 살아 있는 식물이나 동물은 인간 존재가 고유의 선을 지닌 것과 동일한 의미로 고유의 선을 지니고 있다. 우주의 다른 어떤 것과도 독립적으로, 그들 자체가 목표 지향적 활동의 중심이다. 그들에게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는 그들 자체의 생존, 건강, 안녕을 참조하면 이해할 수 있다.

④

생명 외경은 인간과 피조물 사이의 관계를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내가 어느 동물을 손상시켰다면 그 일이 필요 불가결한 일이었던가 하는 문제에 대해 명백해야 한다. 나는 피할 수 없는 일 이상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 (중략) … 얻어 낸 결과가 인간에게 도움을 주게 하기 위하여 동물을 수술하고 약을 주고 병균을 주사하는 사람은 이 잔인한 행위가 가치 있는 목적을 수반한다고 일반적으로 유유자적해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에나 그들은 인류를 위해서 동물을 희생시키는 일이 실제로 필요 불가결한 일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①

나는 대지에 대한 우리의 윤리 관계가 그것에 대한 사랑과 존중 그리고 흠모 없이, 또한 그것의 가치에 대한 높은 평가 없이 형성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내가 말하는 가치란 단순한 경제적 가치보다 훨씬 광범위한 것이다. 즉 철학적 의미의 가치이다. … (중략) … 바람직한 대지 이용을 오직 경제적 문제로만 생각하지 말라. 낱낱의 둘음을 경제적으로 무엇이 유리한가 하는 관점뿐만 아니라 윤리적, 심미적으로 무엇이 옳은가의 관점에서도 검토하라. 생명 공동체의 통합성과 안정성 그리고 아름다움의 보전에 이바지한다면, 그것은 옳다. 그렇지 않다면 그르다.

②

우리에게 환경 윤리가 필요하지만 사람들이 자연에 대한 사랑을 보여 주기 위해 이타적으로 자기 이익을 포기하고 심지어 희생까지 한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장기적으로 생태계에 역효과를 낳을 바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신, 그보다 넓은 관점인 동일시를 통하여, 환경 보호 덕분에 자기 이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기 사랑을 통해서, 더 넓어지고 깊어진 자기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말입니다.

③

인간과 인간이 아닌 삶의 주체는 존중받을 도덕적 권리의 갖는다. 이러한 권리를 가진 개체들은 다른 것들의 이익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④

고통은 그 자체로 나쁘며, 고통받는 존재의 인종, 성, 종(種)과 무관하게 고통은 억제되어야 한다. 동물에게는 거리낌 없이 고통을 가하면서, 인간에게는 유사한 고통을 가하려 하지 않는 인간은 종 차별주의자들이다.

①

무생물은 그들 고유의 선이 없기 때문에 올바르게 혹은 그릇되게 대우할 수 없으므로 도덕적 지위를 가질 수 없다. 반면에 모든 생명체는 고유한 자신의 선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

②

나무와 단세포 원생동물 같은 유기체에게는 의식적인 삶이 없다. 그들은 그들 주변의 세계를 의식하지 못한다. 그들은 생각이나 감정이 없으므로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없다. 그래도 그들에게는 고유의 선이 있고 그들의 행위는 그 선을 중심으로 조직된다. 의식이 있든 없든 모든 유기체는 자신의 존재를 지키고 유지하는 지속적인 경향이 있으며, 목표 지향적으로 활동하는 통일되고 일관성 있고 질서 정연한 시스템이라는 의미에서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③

사고하는 인간이 선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는 것, 발전할 수 있는 생명을 그 최고의 가치에 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 그가 악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을 파괴하는 것, 발전할 수 있는 생명을 억압하는 것이다.

④

어떤 동물이 아무리 완전하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인간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동물은 없다. 까치나 앵무새가 사람처럼 말을 토해 낼 수는 있으나 생각하는 것을 스스로 이야기한다고 할 수 없다. 이것은 동물이 인간보다 이성을 덜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함이 아니라 동물은 전적으로 어떤 이성도 갖고 있지 않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①

자연은 목적 없이는 아무것도 만들지 않으므로 모든 동물은 본디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졌음에 틀림없다. 식물은 동물에게 생존 수단이 되기 위해, 그리고 동물은 사람에게 생존 수단이 되기 위해 존재한다.

②

모든 생명체가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는 것은 생명체가 자신의 생존을 유지하고, 자신의 종(種)을 재생산 하며,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게 하는 생명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해 주는 항상적인 경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③

동물은 정신을 전혀 갖고 있지 않으며 기관의 배치에 따라 작동하는데, 그것이 곧 동물의 본성이다. 이것은 바퀴와 태엽만으로 만들어진 시계가 우리의 모든 능력 이상으로 정확하게 시간을 해야리고 때를 측정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많은 동물이 어떤 행동에서 우리보다 더 많은 재능을 보이지만, 그렇다고 동물이 정신을 갖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④

인간이 동물을 죽이거나 혹은 어떤 다른 방법으로 부리는 것은 부정의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동물은 신의 섭리에 따라 당연하게 인간에 의해 이용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①

인간은 다른 생명체가 지구 생명 공동체의 일원인 것과 동일한 의미와 조건으로 그 공동체의 일원이다. 모든 유기체는 각각 자신의 방식으로 고유의 선을 추구하는 유일한 개체라는 의미에서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유기체에게 자유란 자신의 본성의 법칙에 따른 활동 기회를 갖는 것이다.

②

대지 윤리는 이 공동체의 범위를 허, 물, 식물과 동물, 곧 포괄하여 대지를 포함하도록 확장하는 것이다. 대지 윤리는 인류의 역할을 대지 공동체의 정복자에서 그것의 평범한 구성원이자 시민으로 변화시킨다.

③

지구상의 인간과 인간 이외의 생명과 안녕과 번영은 그 자체로서 가치를 지닌다. 이 가치는 자연계가 인간의 목적을 위해 얼마나 유용한가 하는 문제와는 독립해 있다. 생명체의 풍부함과 다양성은 이러한 가치의 실현에 이바지하며, 또한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닌다. 인간은 생명 유지에 필요한 경우, 즉 본질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풍부함과 다양성을 감소시킬 권리가 없다. 우리는 인간이 자연과의 상호 연관성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큰 자아실현’, 그리고 모든 생명체는 상호 연결된 전체의 평등한 구성원이라고 보는 ‘생명 중심적 평등’이라는 관점을 지녀야 한다.

④

흙, 물, 동식물, 인간을 포함하는 생명 공동체는 생명적 성질을 지닌다. 안정된 관계에서 공동체 구성원들은 다른 존재의 삶을 위한 자원이 되며, 사용된 후에는 다시 생명 공동체로 돌아가 재순환된다.

①

자신의 생존을 유지하고 자신의 종을 재생산하며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게 하는 목적 지향적 생명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존재들은 모두 자기의 고유한 선을 지닌다. 이러한 존재들은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②

삶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믿음과 바람이 있는 경우, 지각, 기억, 자신의 미래를 포함한 미래에 대한 감각을 가질 경우, 쾌락과 고통의 느낌과 정서적 삶을 영위할 경우, 선호와 복리와 관련된 이익을 가질 경우, 자신의 바람과 목표를 추구하면서 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등이다. 이들 개체들의 가치는 다른 개체들에게 주는 이익과 논리적으로 독립되어 있다.

③

인간처럼 일부 동물은 어떤 기본적인 도덕적 권리를 갖는다. 모든 도덕적 행위자와 일부 동물은 존경의 처우에 관한 기본적인 도덕적 권리, 해악을 입지 않을 기본적 도덕적 권리를 갖는다.

④

윤리가 개인을 넘어 대지 공동체로 확대되는 과정은 지식의 증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대지란 흙, 식물, 동물을 순회하며 흐르는 에너지의 원천이다.

①

만약 어떤 존재가 고통을 느낀다면 그와 같은 고통을 고려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거부하는 태도를 옹호할 수 있는 도덕적 논증은 있을 수 없다. 어떤 존재의 본성이 어떠하든 평등의 원리는 그 존재의 고통을 다른 존재의 동일한 고통과 동등하게 취급할 것을 요구한다. 어떤 존재가 고통을 느끼거나 행복을 누릴 수 없다면 거기서 고려해야 할 바는 없다.

②

인간 자신을 포함한 개개의 종은 많은 먹이 사슬의 한 고리이다. 대지의 먹이 사슬은 복잡해서 무질서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체계는 안정된 구조이고, 그것의 작동은 다양한 구성 요소들의 협동과 경쟁에 의존한다.

③

인간은 자기를 도와주는 모든 생명을 도와줄 필요성을 존중하고, 살아 있는 어떠한 것에 대해서 해를 끼치는 것을 부끄러워할 때에만 비로소 진정으로 윤리적이다. 인간은 이 생명 혹은 저 생명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으로 동정을 받는지에 대해 묻지 않으며, 또한 그것이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얼마나 느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묻지 않는다. 생명은 그 자체로서 인간에게 신성한 것이다. 그는 나무의 잎을 떼어 내지 않으며, 어떤 꽃도 꺾지 않으며, 작은 곤충조차 밟아서 죽이지 않으려고 신경 쓴다.

④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파괴적 성향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반한다. 그것은 도덕성을 촉진하는 인간 안의 감정을 약화 또는 없애기 때문이다.

①

고통과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은 이익 관심을 갖기 위한 선행 조건이다. 돌멩이는 이러한 능력이 없으므로 이익 관심을 지닐 수 없다. 이익 관심을 지닌 존재들의 이익은 인간의 이익과 동등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②

인간은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든 이성적 존재자는 목적 그 자체로 실존하며, 한낱 이런저런 의지의 임의적 사용을 위한 수단으로서 실존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든 이성적 존재자는 그의 모든, 자기 자신을 향한 행위에서 그리고 다른 이성적 존재자를 향한 행위에서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서 보아야 한다.

③

다원이 종의 기원에 대해 말한 지 한 세기가 되었고, 이로써 우리는 인간이 진화의 오디세이에서 다른 생물들의 동료 항해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새로운 지식을 통해 지금쯤 우리는 동료 생물들을 친족처럼 생각할 줄 알아야 했다.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한 소망, 생명 세계의 장엄함과 영속성에 대한 경외감도 함께 말이다. 대지 윤리는 공동체의 범위를 토양, 물, 식물과 동물, 곧 포괄하여 대지를 포함하도록 확장하는 것이다.

④

이성은 없지만 생명이 있는 일부 피조물과 관련하여 동물을 폭력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잔학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와 내면에서 더욱더 배치된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동물의 고통에 대한 공감이 인간 안에서 둔화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도덕성에 매우 이로운 자연 소질이 약화되어 점차로 멀절될 것이기 때문이다.

①

자신의 기능을 능히 그리고 잘 수행한다는 것은 곧 탁월함이다. 각각의 기능은 거기에 알맞은 적절한 덕과 더불어 완전하게 표현될 경우에만 가장 잘 완성된다. 식물은 동물을 위해, 동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고, 가축은 인간의 사용과 음식을 위해, 그리고 야생 동물은 인간의 음식과 의복, 여러 도구를 위해 존재한다. 자연은 목적이 없거나 헛된 일을 하지 않는다.

②

우리의 대지에 대한 경제적 관계를 보완하고 지도하는 윤리는 하나의 생명 메커니즘으로서의 대지 이미지의 존재를 전제한다. 우리는 단지 우리가 보거나 느끼거나 이해하거나 사랑하거나 아니면 믿는 것에 대해서만 윤리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윤리를 인간 환경으로 확장하는 것은 진화론적 가능성이나 생태학적 필연성이다.

③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경험상 한갓 인간 외에는 의무를 질 능력이 있는 또 다른 존재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통상 한갓 인간에 대한 의무 외에는 어떤 존재자에 대한 의무도 가질 수 없다. 그럼에도 인간이 그런 의무를 갖는다고 표상한다면, 그것은 반성 개념의 모호성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다.

④

자신의 본성의 법칙에 따라 고유의 선을 증진하고 보호할 능력과 기회가 있는 유기체는 자유롭다. 그 유기체가 고유의 선을 실현하는 것을 어렵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만드는 제약이 있다면, 그만큼 그 유기체는 자유롭지 못하다. 반면 제약의 일부 또는 전부가 사라져 유기체가 환경에 적응하는 데 성공하고 생명을 보존하고 안녕을 증진할 수 있다면 그 유기체는 자유롭다.

①

선호와 복지에 대한 이익 관심, 자기의 욕구와 목표를 위해 행위할 수 있는 능력, 타자와 구분되는 자신의 복지를 갖고 있는 존재는 희망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삶의 주체이며 수단으로만 대우받아서는 안 된다.

②

Step 3. 고난도 O/X 선지 테스트

2026학년도 수능특강 · 수능완성 심화 개념 전격 반영!
평가원 기출 소스와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는 덤으로 얻어가자!

(1) 하이데거는 기술이 인간의 자율적 의지에 전적으로 종속되어 있다고 본다.	(○ / ×)
(2) 하이데거는 기술을 적용할 때 인간의 가치 판단을 최대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3) 앤스퍼스는 기술이 인간의 목적 설정에 따라 악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 ×)
(4) 앤스퍼스에 따르면 기술은 그 자체로는 선악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	(○ / ×)
(5) 앤스퍼스는 기술에 그 자체로 지향하는 목적이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 / ×)
(6) 앤스퍼스와 하이데거 모두 기술이 수단이라는 사실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 / ×)
(7) 요나스는 전통 윤리가 예견될 수 있는 전망에 대한 책임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 / ×)
(8) 요나스는 인간 실존 그 자체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악(惡)이 아닌 선(善)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 / ×)
(9) 요나스는 현세대와 미래 세대가 상호 호혜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10) 요나스에 따르면 책임에 대한 명령은 조건부 명령으로 제시된다.	(○ / ×)

MEMO

(1) 요나스는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에 대해서도 책임 의식을 지녀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2) 요나스에 따르면 책임질 수 있다는 사실이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는 의무를 필연적으로 낳는 것은 아니다.	(○ / ×)
(3) 베이컨은 관찰과 실험을 비롯한 경험적 방법을 통해 유용한 지식을 획득할 수 있다고 본다.	(○ / ×)
(4) 베이컨은 자연의 일부분인 인간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5) 베이컨에 따르면 과학의 목적은 인간의 행복이 아니라 진리 추구 그 자체에 있다.	(○ / ×)
(6) 베이컨과 요나스는 모두 과학 기술의 긍정적 영향보다는 부정적 영향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 / ×)
(7) 베이컨은 자연이 경험적 연구가 아닌 이성적 추론의 대상이라고 본다.	(○ / ×)
(8) 하이데거에 따르면 기술이 인간의 목적을 위한 도구라는 말은 사실이 될 수 없다.	(○ / ×)
(9) 하이데거는 기술의 본질이 인간이 세계와 맺는 관계를 규정하는 데 있다고 본다.	(○ / ×)
(10) 하이데거에 따르면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은 현대 기술의 부품으로 환원될 수 있다.	(○ / ×)

MEMO

(1) 하이데거는 기술 그 자체가 가치와 무관한 사실의 영역에 속한다고 본다.	(○ / ×)
(2) 앤스퍼스와 달리 하이데거는 기술의 활용에 수반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반성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 / ×)
(3) 하이데거에 따르면 기술은 인간이 자신과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 ×)
(4) 요나스에 따르면 미래 세대는 현세대에게 인간 종(種)의 존속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명령자이다.	(○ / ×)
(5) 요나스는 현세대가 인간에 대한 의무보다 자연에 대한 의무를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6) 요나스에 따르면 기술에 내포된 위협적 요소에 대해 윤리적으로 숙고해야 한다.	(○ / ×)
(7) 요나스는 과학자가 연구를 수행할 때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본다.	(○ / ×)
(8) 베이컨은 인간이 자연과 분리된 존재이며,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9) 베이컨에 따르면 과학의 목적은 인간의 활동 영역을 넓히는 데 있다.	(○ / ×)
(10) 앤스퍼스에 따르면 기술이 그 자체로 어떤 가치를 지향할 수는 없다.	(○ / ×)

MEMO

(1) 야스퍼스는 기술 그 자체를 가치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 / ×)
(2) 하이데거는 기술을 가치 중립적인 도구로만 간주할 경우 인간이 기술에 종속당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 / ×)
(3) 요나스에 따르면 현세대는 미래 세대의 존속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 / ×)
(4) 요나스는 행위의 결과에 대한 사후적 책임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로부터 예견될 수 있는 사전적 책임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 / ×)
(5) 베이컨과 요나스 모두 과학 기술이 자연에 대한 인간의 영향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본다.	(○ / ×)
(6) 베이컨은 과학 기술의 궁극적 목표가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 있다고 본다.	(○ / ×)
(7) 베이컨은 인류의 권력과 지배권을 자연 전체에 대해 수립하고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8) 베이컨에 따르면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권은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에 달려 있다.	(○ / ×)
(9) 베이컨은 실험과 관찰을 통해 수집된 경험적 사실로부터 일반적 원리를 도출할 수 있다고 본다.	(○ / ×)
(10) 베이컨에 따르면 과학자의 임무는 자연이 인간의 이익에 봉사하도록 하는 데 있다.	(○ / ×)

— M E M O —

(1) 요나스는 악(惡)과 인간 감정 사이의 대립으로 촉발되는 가치에서 인간이 져야 하는 책임을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 ×)
(2) 요나스에 따르면 악(惡)의 인식은 선(善)의 인식보다 직접적이고 설득력이 있다.	(○ / ×)
(3) 하이데거는 기술이 사물을 탈은폐시킴으로써 사물들의 존재를 규정한다고 본다.	(○ / ×)
(4) 하이데거에 따르면 현대 기술은 기술을 통해 참된 것이 드러날 수 있는 가능성을 사라져 버리게 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 / ×)
(5) 하이데거는 기술이 본질적으로 은폐되어 존재하는 사물을 탈은폐시키는 가치 중립적 수단일 뿐이라고 본다.	(○ / ×)
(6) 앤스퍼스가 보기에 하이데거는 인간의 의도적인 개입 없이는 기술이 인간에게 해악을 끼칠 수 없음을 간과한다.	(○ / ×)
(7) 하이데거가 보기에 앤스퍼스는 기술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윤리적 성찰이 필요함을 간과한다.	(○ / ×)
(8) 하이데거가 보기에 베이컨은 기술이 자연뿐만 아니라 인간까지도 종속시킬 수 있음을 간과한다.	(○ / ×)
(9) 베이컨이 보기에 앤스퍼스는 기술 그 자체는 도덕적 가치 판단의 대상이 아님을 간과한다.	(○ / ×)
(10) 요나스는 기술의 빠른 진화로 인한 윤리적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윤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 ×)

— M E M O —

(1) 요나스에 따르면 모험적 기술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때는 불행의 예측이 필요하다.	(○ / ×)
(2) 요나스는 비이성적 존재에 미치는 기술의 영향도 인간의 윤리적 숙고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 / ×)
(3) 요나스에 따르면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기술 행위의 비의도적 결과가 부정적인 경우는 없다.	(○ / ×)
(4) 요나스는 기술의 진보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 공포의 발견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 ×)
(5) 하이데거는 현대 기술의 도발적 요청으로 자연은 이제 자연 그 자체가 아니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 / ×)
(6) 하이데거에 따르면 현대 기술에 의해 인간은 단순히 하나의 자원에 불과한 존재로 규정되고 있다.	(○ / ×)
(7) 하이데거는 인간이 기술의 본질을 직시하면 자신의 본래적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지게 된다고 주장한다.	(○ / ×)
(8) 하이데거에 따르면 기술을 가치 중립적 수단으로 간주하는 것은 기술의 본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피상적 규정일 뿐이다.	(○ / ×)
(9) 요나스는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는 당위에서 책임질 수 있다는 사실적 가능성이 도출된다고 본다.	(○ / ×)
(10) 요나스에 따르면 과학 기술로 발생할 수 있는 결과의 시공간적 확장은 인간의 책임 범위의 확대를 불러온다.	(○ / ×)

M E M O

(1) 요나스는 기술로 얻은 권력의 크기와 인간의 책임 범위는 반비례한다고 본다.	(○ / ×)
(2) 요나스는 과학 기술 활용의 비의도적 결과는 책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다.	(○ / ×)
(3) 요나스에 따르면 미리 사유된 위험 자체는 윤리적 원리를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 / ×)
(4) 요나스는 현세대가 인간의 선(善)뿐만 아니라 인간 외적인 사물의 선(善)도 탐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5) 하이데거는 과학 기술이 인간의 목적 실현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 ×)
(6) 하이데거는 과학 기술을 활용하는 인간의 행위가 성찰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다.	(○ / ×)
(7) 요나스와 하이데거 모두 현대 과학 기술이 인간이 아닌 존재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 ×)
(8) 요나스와 하이데거 모두 기술이 인간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 / ×)
(9) 요나스는 기술이 주는 공포로부터 현세대의 의무를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10) 요나스는 기술이 발달할수록 자연에 대한 인간의 책임은 감소한다고 주장한다.	(○ / ×)

M E M O

(1) 하이데거는 기술의 도구적 속성에 대한 인식과 기술의 진정한 본질에 대한 고찰은 양립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 / ×)
(2) 요나스는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확대된 현세대의 권력이 일방적이고 맹목적인 성격을 띤다고 본다.	(○ / ×)
(3) 요나스에 따르면 새로운 윤리는 권리나 호혜성의 이념과 연관된 것만을 포함하고 있다.	(○ / ×)
(4) 요나스는 과학 기술 연구의 자유를 위해 연구자에게 외적 책임을 면제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5) 요나스는 기술이 가져올 부정적 효과보다 긍정적 효과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6) 요나스는 기술의 진보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인간의 윤리적 의무라고 주장한다.	(○ / ×)
(7) 요나스에 따르면 기술 연구의 대상에 미래 인류의 실존과 생명체들의 존속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8) 요나스는 기술이 선하고 정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될 때에도 기술의 영향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본다.	(○ / ×)
(9) 요나스는 전통 윤리와 달리 책임 윤리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만을 근거로 성립한다고 본다.	(○ / ×)
(10) 요나스에 따르면 지배적 권력이 된 과학 기술의 힘에 비례해 윤리적 책임이 수반되어야 한다.	(○ / ×)

M E M O

(1) 야스퍼스는 기술이 인간과 무관하게 광기를 부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 / ×)
(2) 야스퍼스와 하이데거 모두 인간의 의도에 따른 기술이 인간에게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	(○ / ×)
(3) 야스퍼스는 기술 자체가 기술을 실현시키는 힘으로부터 독립적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 / ×)
(4) 야스퍼스는 기술이 인간 사회와 무관한 그 자체의 발전 논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 / ×)
(5) 하이데거에 따르면 기술은 단순한 가치 중립적 도구가 아니다.	(○ / ×)
(6) 야스퍼스와 달리 하이데거는 인간이 설정한 목적에 따라 기술이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도 있고 부정적인 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본다.	(○ / ×)
(7) 하이데거는 기술이 감추어져 있는 존재의 모습을 드러내 주는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 / ×)
(8) 요나스는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책임져야 한다는 당위로 연결된다고 주장한다.	(○ / ×)
(9) 요나스에 따르면 현세대에게는 인류가 존재해야 한다는 절대적인 당위적 요청이 부과된다.	(○ / ×)
(10) 요나스는 현세대의 일차적 책임이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배려하는 데 있다고 본다.	(○ / ×)

MEMO

(1) 요나스에 따르면 생태학적 정언 명령은 행위의 결과와 무관하게 이행되어야 할 무조건적 의무이다.	(○ / ×)
(2) 하이데거는 기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기술에 대한 가치 중립적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3) 요나스에 따르면 전통 윤리의 책임 대상은 행위의 직접적 결과의 영역에 국한되었다.	(○ / ×)
(4) 요나스는 기존의 전통적인 윤리적 세계가 예견될 수 없는 삶의 기간으로 한정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 / ×)
(5) 요나스에 따르면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공포가 책임의 본질적 속성이다.	(○ / ×)
(6) 베이컨은 인간이 자연에 대해 관찰하고 이해한 만큼 자연을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한다.	(○ / ×)
(7) 베이컨은 과학이 전적으로 유용한 결과만을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 / ×)
(8) 베이컨에 따르면 과학으로 자연을 변화시킴으로써 인간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 / ×)
(9) 하이데거는 과학 기술의 본질을 인간 목적을 위한 도구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10) 하이데거는 과학 기술을 인간과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M E M O —

(1) 야스퍼스와 하이데거 모두 과학 기술의 작용과 결과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 ×)
(2) 요나스는 미리 경험된 위험만을 윤리의 나침반으로 삼아 책임을 발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3) 요나스에 따르면 인류의 존속을 위해서는 과학에 대한 윤리적 성찰이 요구된다.	(○ / ×)
(4) 요나스는 새로운 윤리가 인간 행위의 전반적 결과를 고려한다고 주장한다.	(○ / ×)
(5) 요나스는 기술 발전이 가져올 희망적 미래를 바탕으로 새로운 윤리를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6) 하이데거는 현대 기술이 사물을 부품화하여 사물의 고유한 본질을 박탈한다고 본다.	(○ / ×)
(7) 요나스는 과학 기술의 영향력의 크기와 인간의 책임에 대한 요구가 비례한다고 주장한다.	(○ / ×)
(8) 하이데거에 따르면 기술은 사물의 드러난 면을 안으로 숨겨 주는 탈은폐의 방식이다.	(○ / ×)
(9) 베이컨은 인간이 자연의 내재적 가치를 인식하고 자연을 지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10) 하이데거와 달리 베이컨은 과학 기술이 자연에 대한 인간의 영향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본다.	(○ / ×)

— M E M O —

(1) 베이컨과 달리 하이데거는 과학 기술을 인간의 도구로만 보는 관점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 ×)
(2) 요나스는 비이성적 존재도 책임의 주체와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3) 요나스는 과학 기술이 가져오는 혜택을 포기해야 새로운 윤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 ×)
(4) 요나스는 인류가 실존해야 한다는 의무가 언제나 최우선적인 의무라고 주장한다.	(○ / ×)
(5) 요나스에 따르면 인류는 하나의 연속적 세대로 이루어진 도덕 공동체이다.	(○ / ×)
(6) 요나스에 따르면 악(惡)은 선(善)과 달리 눈에 띄게 존재하며 인간의 인식을 강요한다.	(○ / ×)
(7) 요나스는 현대 과학 기술이 인간 행위가 미치는 범위를 확장하였다고 본다.	(○ / ×)
(8) 요나스에 따르면 새로운 윤리는 인간과 자연에 대한 책임을 주장한다.	(○ / ×)
(9) 요나스는 인간 삶에 대한 미래의 가능성을 파괴하지 않도록 행위의 결과를 고려하여 행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10) 하이데거는 현대 기술의 지배 속에서 자연은 에너지원으로 규정된다고 주장한다.	(○ / ×)

— M E M O —

(1) 하이데거는 현대 기술이 자연을 기술적으로 조작이 가능한 재료로 바라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 / ×)
(2) 요나스에 따르면 새로운 윤리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들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 / ×)
(3) 요나스는 현세대와 미래 세대가 실존에 대한 상호 간 의무를 가지는 주체라고 주장한다.	(○ / ×)
(4) 요나스는 새로운 윤리가 생명이 처한 미래의 상황에 대한 책임을 의무로 규정한다고 주장한다.	(○ / ×)
(5) 요나스에 따르면 기술은 자연과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 / ×)
(6) 요나스에 따르면 인간의 권력과 책임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 / ×)
(7) 요나스에 따르면 현세대는 책임의 원칙에 따라 두려움과 절제의 덕목을 지녀야 한다.	(○ / ×)
(8) 요나스에 따르면 미래 세대는 현세대와 함께 책임의 주체로서 자연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	(○ / ×)
(9) 요나스에 따르면 현세대는 인류의 무한한 존속을 위협하는 어떠한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	(○ / ×)
(10) 하이데거는 과학 기술에는 인간을 조종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본다.	(○ / ×)

MEMO

(1) 요나스에 따르면 현세대는 미래 세대에 대해 비호혜적이고 일방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 / ×)
(2) 요나스는 현대 기술 문명의 특징이 미래에 대한 영향력 증대에 있다고 본다.	(○ / ×)
(3) 요나스에 따르면 새로운 윤리는 행위된 것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행위되어야 할 것에 대한 책임도 강조한다.	(○ / ×)
(4) 요나스에 따르면 기존의 전통 윤리는 인간이 아닌 존재에 대한 책임을 포함하지 않는다.	(○ / ×)
(5) 요나스는 과학 기술의 활용과 자연 보전이 양립 불가능하다고 본다.	(○ / ×)
(6) 요나스에 따르면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지켜야 하는 무조건적 의무가 있다.	(○ / ×)
(7) 요나스에 따르면 새로운 윤리는 인간의 선(善)이 아닌 인간 외적인 것의 선(善)을 탐구해야 한다.	(○ / ×)
(8) 요나스에 따르면 책임의 근원적 공포 속에서는 인간이 추구해야 하는 선(善)이 발견되지 않는다.	(○ / ×)
(9) 요나스는 인류의 무한한 생존을 위해서는 기술 권력의 한계를 설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10) 요나스에 따르면 책임 윤리는 이미 행해진 것에 대한 보상적 책임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 / ×)

— M E M O —

(1) 하이데거와 달리 야스퍼스는 기술이 인간의 삶에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 ×)
(2) 요나스에 따르면 인간은 모든 생명체의 고유한 목적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	(○ / ×)
(3) 요나스에 따르면 현세대는 최고선의 획득보다는 최고악의 회피를 추구해야 한다.	(○ / ×)
(4) 요나스에 따르면 현대 기술의 힘은 인간의 통제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	(○ / ×)
(5) 베이컨과 달리 요나스는 기술 진보가 미래 인류의 실존과 자연에 대해 초래할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6) 요나스는 인류 실존에 대한 명령이 미래 세대의 실존에 대한 책임을 부과한다고 본다.	(○ / ×)
(7) 요나스는 자연이란 인간의 기술적 행위에 종속된 물질적 자원에 불과하다고 본다.	(○ / ×)
(8) 베이컨은 인간 삶의 개선과 이상 사회의 실현을 위해 과학 기술은 필수적이라고 본다.	(○ / ×)
(9) 요나스는 인간만이 생명체의 고유한 목적을 보호할 책임을 지닌다고 본다.	(○ / ×)
(10) 베이컨과 달리 요나스는 인간이 자신에게 의무가 되는 대상에 대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M E M O

(1) 베이컨은 인간이 지성적 탐구를 통해 자연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본다.	(○ / ×)
(2) 레건에 따르면 일부 동물은 도덕적 무능력자이지만, 인간의 경험적 좋음에서 독립하여 스스로 자기 안에서 가치를 가질 수 있다.	(○ / ×)
(3) 슈바이처에 따르면 생명을 유지하고 촉진하는 것은 선(善)이고, 생명을 파괴하고 훼손하는 것은 악(惡)이다.	(○ / ×)
(4) 슈바이처에 따르면 모든 생명은 동등한 가치를 지니며 외경의 대상이 된다.	(○ / ×)
(5) 슈바이처는 불가피하게 생명을 해치는 경우에만 살생에 대한 도덕적 책임이 면제된다고 주장한다.	(○ / ×)
(6) 테일러에 따르면 모든 유기체는 고유의 선을 추구하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 / ×)
(7) 레오플드와 달리 테일러는 인간이 어떠한 생명체보다도 본래적으로 우월한 존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 / ×)
(8) 테일러에 따르면 모든 생명체가 추구하는 선의 내용과 수단은 다르지 않다.	(○ / ×)
(9) 테일러는 인간과 다른 생명체 사이에 공유되는 특징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 / ×)
(10) 레오플드는 개별 개체의 권리 보장보다는 종(種)과 생태계의 보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M E M O

(1) 레오플드는 집합적 대지를 포함하도록 도덕 공동체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2) 레오플드에 따르면 인간은 대지의 평범한 구성원이라기보다는 대지의 관리자이자 지배자이다.	(○ / ×)
(3) 네스는 인간이 자연과의 상호 연관 속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4) 네스에 따르면 환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자신의 세계관과 생활 양식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	(○ / ×)
(5) 칸트는 동물 학대 금지 의무의 근거가 도덕성에 이로운 자연적 소질의 보전에 있다고 주장한다.	(○ / ×)
(6) 베이컨과 데카르트 모두 자연을 인류를 위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 ×)
(7) 유교에서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천인합일(天人合一)의 경지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8) 도가에 따르면 자연은 아무런 목적과 질서가 없는 무위(無爲)의 체계이다.	(○ / ×)
(9)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테일러는 인간의 목적을 위해 동식물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 / ×)
(10) 싱어에 따르면 평등의 원리는 한 존재의 고통을 다른 존재의 동일한 고통과 동등하게 취급할 것을 요구한다.	(○ / ×)

— M E M O —

(1) 싱어는 고통을 느낄 수 없는 존재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다.	(○ / ×)
(2) 싱어는 동물 보호 의무의 근거를 인간의 이익에 대한 기여 여부에서 찾는다.	(○ / ×)
(3) 레건에 따르면 모든 삶의 주체는 도덕적 행위 능력을 갖는다.	(○ / ×)
(4) 레건은 삶의 주체 중 일부는 내재적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고 본다.	(○ / ×)
(5) 레건에 따르면 동물이 인간과 동등한 도덕적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 / ×)
(6) 레건은 삶의 주체인 동물은 감정적 생활을 하고 목적을 추구한다고 주장한다.	(○ / ×)
(7) 불교에 따르면 자연의 모든 존재는 상호 의존적으로 존재한다.	(○ / ×)
(8) 도가에서는 자연이 인간의 도덕적 본성[性]의 근원이라고 본다.	(○ / ×)
(9) 레오플드에 따르면 인간은 대지를 사랑과 존중의 대상으로 삼는 윤리적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 / ×)
(10) 싱어는 인간의 이익을 위해 감각적 존재를 희생시키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 ×)

MEMO

(1) 싱어에 따르면 종 차별주의를 지양하고 인간과 동물을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	(○ / ×)
(2) 싱어와 달리 레건은 인간과 동물에게 동등한 수준의 도덕적 행위 능력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3) 싱어는 인간과 동물이 선호하는 이익 관심의 대상이 다를 수 있다고 본다.	(○ / ×)
(4) 레오플드는 대지를 수많은 존재가 서로 균형을 맞추며 살아가는 공동체로 인식한다.	(○ / ×)
(5) 레오플드는 자연 그 자체의 가치를 인간의 이해(利害)에 따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6) 레오플드에 따르면 인간은 생명 공동체의 관리자라기보다는 대지의 한 구성원일 뿐이다.	(○ / ×)
(7) 네스는 인간에게 유용한지와는 무관하게 자연이 그 자체로 고유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 / ×)
(8) 네스에 따르면 생명체의 풍부함을 유지하기 위해 개별 생명체를 살생하는 행위를 일절 금지해야 한다.	(○ / ×)
(9) 테일러에 따르면 무생물은 고유의 선을 갖지만 본래적 가치는 가지지 못한다.	(○ / ×)
(10) 칸트와 테일러 모두 인간 이외의 자연물을 단순한 수단으로 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 한다.	(○ / ×)

— M E M O —

(1) 테일러에 따르면 모든 생명체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므로 도덕적 행위자가 될 수 있다.	(○ / ×)
(2) 칸트는 이성이 있는 존재가 도덕적 고려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 ×)
(3) 싱어와 달리 레건은 쾌고 감수 능력이 동물의 이익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 유일한 근거가 아니라고 본다.	(○ / ×)
(4) 싱어와 레건 모두 동물의 고통을 초래하지 않는 행위도 비도덕적일 수 있다고 본다.	(○ / ×)
(5) 테일러와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식물의 선과 동물의 선이 인간의 선을 위해 존재한다고 본다.	(○ / ×)
(6) 레건에 따르면 삶의 주체인 동물은 무엇이 옳은 행동인지를 분별하여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 / ×)
(7) 테일러에 따르면 모든 생명체는 생존, 번식, 성장, 적응 등을 자신의 고유한 목적으로 추구 한다.	(○ / ×)
(8) 레건은 모든 동물이 삶의 주체로서 도덕적 권리와 같은 권리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 / ×)
(9) 테일러는 인간이 식물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인간의 도덕적 의무 중 하나라고 주장한다.	(○ / ×)
(10) 아리스토텔레스, 레건, 테일러 모두 도덕적 행위 능력이 생명체의 도덕적 지위를 결정하는 주된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 / ×)

M E M O

(1) 싱어에 따르면 자연 내의 존재에 의해 경험되는 모든 고통이 도덕적 고려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 ×)
(2) 테일러에 따르면 도덕적 행위자는 고유의 선을 가지는 모든 개별 개체의 선을 동등하게 배려해야 한다.	(○ / ×)
(3) 테일러에 따르면 생명체에 대한 인간의 도덕적 의무가 상호 간에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는 없다.	(○ / ×)
(4) 레오폴드에 따르면 무생물을 포함한 자연 전체는 인간의 이해(利害)와 무관하게 본래적 가치를 지닌다.	(○ / ×)
(5) 칸트는 인간 외 존재들은 어떠한 가치도 가질 수 없다고 본다.	(○ / ×)
(6) 칸트에 따르면 이성적 존재인 인간은 동물과 달리 무조건적 명령인 도덕 법칙에 따라 행위해야 한다.	(○ / ×)
(7) 싱어는 도덕적 고려의 구체적 내용이 고려 대상의 특징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 / ×)
(8) 싱어에 따르면 모든 유정적 존재가 도덕적 고려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 / ×)
(9) 레오폴드에 따르면 대지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은 인간의 경제적 이익과 관계없이 존속할 권리를 갖는다.	(○ / ×)
(10) 테일러는 생태계 내의 모든 존재가 도덕적으로 대우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M E M O —

(1) 칸트에 따르면 인간에게 이익을 주는 동물은 목적 그 자체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	(○ / ×)
(2) 테일러는 모든 유기체가 인간과 동등한 의식 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 / ×)
(3) 테일러는 이성적 존재가 언제나 자신의 이익보다 다른 생명체의 선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4) 레오플드에 따르면 대지의 이용을 오직 경제적인 문제로만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 ×)
(5) 레오플드는 생명 공동체가 인간의 목적과 무관하게 본래적 가치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 / ×)
(6) 테일러와 달리 레오플드는 개별 생명체의 이익과 생명 공동체의 안정성이 동등하게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 / ×)
(7) 테일러에 따르면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모든 유기체 간에는 서로 지켜야 할 도덕적 책임이 있다.	(○ / ×)
(8) 슈바이처에 따르면 생명을 파괴하거나 발전 가능한 생명을 억누르는 행위는 모두 악한 행위이다.	(○ / ×)
(9) 도가에서는 자연이 무목적의 질서 체계를 통해 인간에게 도덕성을 부여한다고 본다.	(○ / ×)
(10) 테일러는 생명 공동체뿐만 아니라 개별 생명체의 고유의 선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M E M O

(1) 유교에 따르면 자연은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지만 만물을 관통하는 이치는 하나이다.	(○ / ×)
(2) 유교와 도가에서는 모두 자연에 대한 인간의 무분별한 개입이 만물의 본성을 거스르는 행위라고 본다.	(○ / ×)
(3) 싱어, 테일러, 레오폴드 모두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존재를 불가피하게 해치는 행위가 정당화 가능하다고 본다.	(○ / ×)
(4) 테일러와 레오폴드는 모두 생명 공동체에 대한 이성적 존재의 개입이 허용될 수 있다고 본다.	(○ / ×)
(5) 레오폴드는 개별 구성원에 대한 존중과 생명 공동체 자체에 대한 존중이 양립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 / ×)
(6) 레건에 따르면 동물에 대한 도덕적 고려는 인간의 이익 관심에 따른 조건부적 의무이다.	(○ / ×)
(7) 레건은 삶의 주체가 되는 일부 동물과 인간은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이므로 존중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8) 레건에 따르면 인간이 내재적 가치를 지니는 모든 동물을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 ×)
(9) 레건에 따르면 인간에게 동물 종(種)에 대한 직접적인 도덕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 / ×)
(10) 레건은 동물을 수단으로만 대우하는 것이 나쁜 궁극적인 이유를 삶의 주체인 동물이 느끼게 될 고통에서 찾는다.	(○ / ×)

— M E M O —

(1) 테일러에 따르면 모든 도덕 행위자는 고유의 가치가 있는 존재의 선을 존중할 의무를 갖는다.	(○ / ×)
(2) 테일러는 동물과 식물이 각각 자기만의 고유한 목적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본다.	(○ / ×)
(3) 아퀴나스, 싱어, 테일러 모두 어떤 존재의 도덕적 지위가 지성의 소유 여부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 / ×)
(4) 싱어, 테일러, 레오폴드 모두 인간의 삶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비이성적 개체가 존재한다고 본다.	(○ / ×)
(5) 칸트, 싱어, 테일러 모두 인간이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동물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 / ×)
(6) 테일러에 따르면 어떤 종(種)을 위한 선은 필연적으로 다른 종(種)을 위한 선이 된다.	(○ / ×)
(7) 테일러에 따르면 생명 공동체 그 자체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도 고유의 선을 갖는다.	(○ / ×)
(8) 싱어는 유정적 존재의 특징과 무관하게 모든 유정적 존재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에 포함 된다고 주장한다.	(○ / ×)
(9) 테일러에 따르면 모든 생명체는 인간의 가치 평가와는 독립적으로 내재적 가치를 갖는다.	(○ / ×)
(10) 유교에 따르면 하늘과 땅은 서로 끊임없이 상응하며 자연 만물을 생성한다.	(○ / ×)

M E M O

(1) 레건은 내재적 가치를 지니는 존재는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우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2) 레건에 따르면 내재적 가치가 있는 모든 존재는 동등하게 존중받을 권리를 갖는다.	(○ / ×)
(3) 슈바이처에 따르면 생명은 지상 최고의 가치이므로 생명을 대하는 태도가 선악 판단의 기준이 된다.	(○ / ×)
(4) 슈바이처와 네스는 모두 생태계 안의 모든 생명체가 본질적으로 평등한 존재라고 주장한다.	(○ / ×)
(5)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다른 생명체와 달리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본다.	(○ / ×)
(6)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테일러와 레오플드는 모두 이성적 능력이 있는 개체를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7) 테일러에 따르면 인간과 동물의 기본적인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인간이 불가피하게 동물을 이용할 수 있다.	(○ / ×)
(8) 싱어와 달리 테일러는 자연 내의 모든 존재를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9) 테일러와 달리 칸트는 모든 생명체 가운데 오직 인간만이 가치가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본다.	(○ / ×)
(10) 테일러, 싱어, 칸트 모두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동물을 인간이 잔인하게 학대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 / ×)

M E M O

(1) 칸트와 달리 테일러는 존엄성을 지닌 모든 존재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 / ×)
(2) 테일러와 레오플드와 달리 칸트는 동물 학대가 인간의 도덕성에 기여하는 자연적 소질을 약화하므로 옳지 않다고 주장한다.	(○ / ×)
(3) 테일러는 자연 내 모든 존재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4) 레오플드는 대지 이용의 문제를 고려할 때 대지에 대한 경제적 관점은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5) 레오플드에 따르면 대지는 인간의 번영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가치를 갖는다.	(○ / ×)
(6) 칸트는 비이성적 존재에 대한 도덕적 의무는 이성적 존재인 인간에게만 부여된다고 본다.	(○ / ×)
(7) 칸트와 달리 테일러는 내재적 가치를 가지는 비이성적인 개체가 존재한다고 본다.	(○ / ×)
(8) 테일러에 따르면 모든 생명체는 인격체의 내재적 가치와 다름없는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 / ×)
(9) 테일러와 레오플드 모두 인간이 생태계의 다양한 구성원 중 하나일 뿐이라고 본다.	(○ / ×)
(10) 테일러는 동식물이 도덕 행위자로부터 이성적 존재자와 동등하게 배려받을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 / ×)

M E M O

(1) 싱어에 따르면 쾌고를 느낄 수 있는 모든 동물은 존속할 권리를 갖는다.	(○ / ×)
(2) 싱어는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동물 실험은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본다.	(○ / ×)
(3) 테일러는 목표 지향적인 활동을 보이는 모든 존재가 도덕적 고려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 / ×)
(4) 테일러에 따르면 살아 있는 식물이나 동물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고유의 선을 지니고 있다.	(○ / ×)
(5) 테일러와 달리 레오플드는 생태계를 조작하거나 통제하려는 시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6) 테일러에 따르면 유기체의 자유는 본성의 법칙에 따른 활동의 기회를 갖는 것이다.	(○ / ×)
(7) 칸트는 인간을 위해 오랫동안 봉사를 수행한 늙은 말은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고 본다.	(○ / ×)
(8) 칸트는 동물을 폭력적으로 다루는 것이 인간에 대한 의무에 배치된다고 주장한다.	(○ / ×)
(9) 테일러와 달리 칸트는 도덕적 의무를 따를 수 있는 존재를 인간으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 / ×)
(10) 칸트는 늙은 말이나 개의 봉사에 대해 감사할 줄 아는 것은 동물에 대한 의무에 속한다고 본다.	(○ / ×)

— M E M O —

(1) 데카르트는 인간이 동물보다 우월한 것은 인간에게 사유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 / ×)
(2) 데카르트에 따르면 동물을 인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단순한 수단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 / ×)
(3) 데카르트는 동물이 기관의 배치에 따라 작동하는 자동 기계 장치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 / ×)
(4) 데카르트는 이성이 없는 생명체 중 도덕적으로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는 없다고 본다.	(○ / ×)
(5) 싱어는 인간과 쾌고를 느낄 수 있는 동물 간에는 어떠한 생물학적 차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 ×)
(6) 싱어는 인간과 쾌고를 느낄 수 있는 동물 간에는 두 존재를 차별적으로 고려하는 합당한 근거가 되어 줄 사실적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 / ×)
(7) 싱어에 따르면 모든 유정적 존재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다.	(○ / ×)
(8) 싱어는 감각 능력이 어떤 존재가 이익 관심을 갖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본다.	(○ / ×)
(9) 싱어는 쾌고를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동물과 인간을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10) 테일러에 따르면 인간이 다른 모든 생명체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	(○ / ×)

— M E M O —

(1) 테일러는 인간이 야생 동물을 속이거나 배신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도덕적 의무 중 하나라고 본다.	(○ / ×)
(2) 테일러는 모든 유기체가 자신의 존재를 지키고 유지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경향성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	(○ / ×)
(3) 레건은 도덕적 무능력자를 도덕적 지위를 지닌 존재로 간주할 수 없다고 본다.	(○ / ×)
(4) 레건에 따르면 삶의 주체인 동물을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만 대해서는 안 된다.	(○ / ×)
(5) 레건은 인간과 달리 동물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영위해 나갈 능력을 가질 수 없다고 본다.	(○ / ×)
(6) 칸트와 달리 레건은 내재적 가치를 지닌 존재는 그들의 내재적 가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7) 슈바이처는 도덕적 지위를 지니는 모든 존재에게 도덕적 의무 이행의 책임이 있다고 본다.	(○ / ×)
(8) 레오플드는 개별 유기체의 생명을 해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 ×)
(9) 레오플드와 달리 슈바이처는 생명체들 간에 차이를 두는 어떠한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한다.	(○ / ×)
(10) 도가에서는 인간이 무목적의 질서를 가진 자연의 한 부분이라고 본다.	(○ / ×)

M E M O

(1) 유교와 도가에서는 모두 인간과 자연 존재 간의 도덕적 고려에서 분별적 차이를 두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	(○ / ×)
(2) 불교에서는 인간과 자연을 상호 유기적인 관계로 파악해야 한다고 본다.	(○ / ×)
(3) 불교에서는 불성을 형성한 생명체를 대상으로 자비(慈悲)의 정신을 실천해야 한다고 본다.	(○ / ×)
(4) 불교에서는 자연의 모든 사물과 현상이 인과(因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 / ×)
(5) 칸트와 달리 싱어와 테일러는 모두 동물에 대한 의무가 인간에 대한 의무의 근거로 정당화 될 수 있다고 본다.	(○ / ×)
(6) 테일러는 인간이 고유한 선을 지닌 존재를 해치지 않을 절대적 의무를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7) 칸트는 도덕적 무능력자는 어떠한 가치도 지니지 못하므로 도덕적 지위 역시 가질 수 없다고 본다.	(○ / ×)
(8) 테일러와 칸트 모두 생명 공동체 자체가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 / ×)
(9) 싱어가 보기에 레건은 쾌고 감수 능력이 어떤 존재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임을 간과한다.	(○ / ×)
(10) 아리스토텔레스, 레오폴드, 테일러 모두 동물을 인간을 위한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 / ×)

— M E M O —

(1) 테일러와 달리 레오플드는 유기체가 아니어도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 ×)
(2) 레오플드와 달리 테일러는 생명 공동체 자체가 아닌 개별 생명체만이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고 주장한다.	(○ / ×)
(3) 아퀴나스에 따르면 인간이 동물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신에게 죄를 짓는 일이다.	(○ / ×)
(4) 슈바이처는 지각력이 없는 생명체는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 / ×)
(5) 아퀴나스에 따르면 신의 섭리에 따라 창조된 자연과 인간은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	(○ / ×)
(6) 슈바이처와 달리 아퀴나스는 인간의 생존을 위해 인간 이외의 생명을 해치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있다고 본다.	(○ / ×)
(7) 칸트가 보기에 레건과 싱어는 모두 도덕적 지위를 지닌 존재와 도덕적 행위 능력이 있는 존재의 범위가 일치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 / ×)
(8) 레건과 싱어가 보기에 칸트는 이성의 유무가 도덕적 지위에 대한 차별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됨을 간과한다.	(○ / ×)
(9) 싱어가 보기에 레건은 모든 동물이 인간의 이익으로 환원될 수 없는 자신의 개별적 이익을 지니므로 도덕적 지위를 가짐을 간과한다.	(○ / ×)
(10) 테일러는 인간이 개별 유기체의 자유를 간섭하거나 생태계를 개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 / ×)

M E M O

(1) 레오플드와 달리 테일러는 모든 생명체가 인간의 필요와 무관하게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본다.	(○ / ×)
(2) 싱어와 칸트와 달리 레오플드는 생태계 자체의 온전성과 안정성의 보전을 도덕적 책임의 영역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3) 칸트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파괴하는 것이 자연에 대한 의무에 위배된다고 본다.	(○ / ×)
(4) 칸트는 자연이 그 자체로 지니는 가치는 인간의 유용성과 무관하게 존중되어야 한다고 본다.	(○ / ×)
(5) 칸트는 도덕적 행위 주체가 아니라면 도덕적 권리가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 / ×)
(6) 레건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을 인간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 / ×)
(7) 싱어에 따르면 모든 유기체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 ×)
(8) 싱어는 쾌고 감수 능력이 동물의 복리(福利) 고려를 위한 충분 조건이 될 수 없다고 본다.	(○ / ×)
(9) 레건과 싱어는 모두 비이성적 생명체도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있다고 본다.	(○ / ×)
(10) 칸트는 이성이 없는 동물은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받을 수 없다고 본다.	(○ / ×)

— M E M O —

(1) 칸트에 따르면 동물의 고통에 대한 공감은 인간의 도덕성 촉진에 기여할 수 있다.	(○ / ×)
(2) 칸트에 따르면 인간은 인간에 대한 의무 외에는 어떤 존재자에 대한 의무도 지지 않는다.	(○ / ×)
(3) 데카르트에 따르면 인간은 자연과 달리 물질로 환원되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다.	(○ / ×)
(4) 테일러는 의식이 없는 존재는 자신의 고유한 선을 추구할 수 없다고 본다.	(○ / ×)
(5) 칸트는 이성이 없는 존재는 수단으로서의 가치만을 지닐 수 있다고 본다.	(○ / ×)
(6) 테일러에 따르면 내재적 존엄성을 지닌 동물과 식물은 모두 도덕적 의무의 대상이다.	(○ / ×)
(7) 도가에 따르면 자연은 도(道)의 운행이자 의지와 목적이 없는 무위(無爲)의 체계이다.	(○ / ×)
(8) 도가에서는 자연의 모든 동식물을 인간과 동일하게 인애(仁愛)로 대해야 한다고 본다.	(○ / ×)
(9) 도가와 불교에서는 모두 인간과 자연의 상호 긴밀성을 깨닫고 이를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 / ×)
(10) 싱어에 따르면 쾌고를 느끼는 동물을 단지 종(種)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인간과 차별하는 것은 종 차별주의이다.	(○ / ×)

M E M O

(1)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자연의 만물은 목적을 가지며, 동물의 목적은 인간의 목적에 종속된다.	(○ / ×)
(2) 데카르트에 따르면 인식 주체인 인간은 인식 대상인 자연을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한다.	(○ / ×)
(3) 칸트는 동물이 수행한 봉사에 대한 감사가 간접적으로 인간의 의무에 속한다고 본다.	(○ / ×)
(4) 네스는 모든 생명체가 상호 연결된 전체의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고 본다.	(○ / ×)
(5) 네스에 따르면 인간은 자아를 우주 전체와의 동일시를 추구하는 보다 큰 자아로 확대해야 한다.	(○ / ×)
(6) 네스에 따르면 인간은 생명 활동을 위해 필요하더라도 생명체들을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 / ×)
(7) 칸트에 따르면 자연적 개체는 모두 도덕적 권리의 지니므로 결코 수단이 될 수 없다.	(○ / ×)
(8) 칸트는 이성적이며 책임 능력을 지닌 도덕 행위자를 목적 그 자체로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 한다.	(○ / ×)
(9) 칸트와 달리 레건은 도덕적 책임 능력이 결여된 존재 중에 도덕적 권리를 지닌 존재가 있다고 주장한다.	(○ / ×)
(10) 레오플드가 보기에도 텔러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개별 생명체만으로 한정되지 않음을 간과한다.	(○ / ×)

M E M O

(1) 레건이 보기에 레오플드는 생명체의 모든 가치가 인간에 대한 효용에 근거해 결정됨을 간과한다.	(○ / ×)
(2) 슈바이처는 인간이 자신의 영양 공급을 위해 다른 생명을 섭취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 ×)
(3) 슈바이처에 따르면 생명체의 모든 활동에는 생명체로서 자기 보존이라는 생명 의지가 존재한다.	(○ / ×)
(4) 슈바이처는 인간이 자신 또한 살려고 하는 생명들 가운데서 살려고 하는 생명임을 자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5) 슈바이처는 다른 생명체의 생명 활동을 부정하는 인간의 행위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도덕적 책임이 면제된다고 본다.	(○ / ×)
(6) 아리스토텔레스와 칸트와 달리 테일러는 인간이 이성적 능력이 없는 자연의 동식물에 대해 잔혹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 / ×)
(7) 아리스토텔레스, 테일러, 칸트 모두 도덕적 책임 능력을 지닌 인간은 자신의 도덕적 의무에 충실히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8) 테일러와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성적 능력이 인간이 동물보다 우월하다는 정당한 근거가 된다고 본다.	(○ / ×)
(9) 테일러는 인간과 동물이 생명체에게 해악을 주는 행위를 자제할 의무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 / ×)
(10) 테일러는 인간이 다른 모든 종(種)과 함께 상호 의존적 체계의 구성 요소라고 본다.	(○ / ×)

M E M O

(1) 레오플드는 인간이 생명 공동체를 이루는 모든 구성원에 대해 도덕적 고려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2) 레오플드는 생명 개체들의 가치뿐만 아니라 생태계 그 자체의 가치까지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3) 칸트에 따르면 이성적 존재자인 인간에게 동물에 대한 직접적 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	(○ / ×)
(4) 칸트에 따르면 동물에 대한 인간의 행동은 도덕성에 이로운 자연적 소질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 / ×)
(5) 싱어가 보기에 테일러는 동물이 자신의 선의 실현과 종(種)에 대한 재생산 경향성을 가짐을 간과한다.	(○ / ×)
(6) 싱어가 보기에 테일러는 어떤 존재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하는 기준이 쾌고 감수 능력임을 간과한다.	(○ / ×)
(7) 테일러가 보기에 싱어는 생명 공동체 자체와 그 구성원 모두가 도덕적 고려의 대상임을 간과한다.	(○ / ×)
(8) 칸트에 따르면 인간과 동물은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있으며, 동물은 자기의식을 결여하고 있다.	(○ / ×)
(9) 데카르트와 칸트 모두 동물은 도덕적 행위의 주체일 수 없고 동시에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없다고 본다.	(○ / ×)
(10) 데카르트와 칸트 모두 동물은 비이성적 존재로서 어떠한 가치도 지니지 않는다고 본다.	(○ / ×)

M E M O

(1) 칸트와 달리 레건은 도덕적 행위자가 아니지만 기본적인 도덕적 권리を持つ 존재가 있다고 본다.	(○ / ×)
(2) 칸트와 달리 레건은 삶의 주체가 되는 동물은 인간의 삶에 대한 기여나 효용과 상관없이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고 본다.	(○ / ×)
(3) 칸트는 이성적 능력이 없는 존재들은 도덕적 행위 주체와의 도덕적 관계 형성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 / ×)
(4)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테일러는 모든 생명체가 자신의 고유한 목적의 실현을 위해 활동한다고 주장한다.	(○ / ×)
(5) 싱어와 레건과 달리 칸트는 동물 학대 금지가 동물에 대한 인간의 의무로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 ×)
(6) 칸트와 싱어와 달리 레건은 인간이 아닌 일부 동물이 도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쾌고 감수 능력 때문만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 / ×)
(7) 칸트는 비이성적 개체가 인간과 달리 어떠한 가치도 가지지 않는다고 본다.	(○ / ×)
(8) 칸트와 레오폴드와 달리 테일러는 개체론적 관점에서 동물의 내재적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9) 레오폴드는 도덕적 고려 대상인 생태계는 경제적 가치로 평가될 수 없다고 본다.	(○ / ×)
(10) 칸트, 테일러, 레오폴드 모두 동물을 대하는 인간의 행위가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 ×)

M E M O

(1) 아리스토텔레스와 아퀴나스 모두 식물, 동물, 인간 간에 위계가 존재한다고 본다.	(○ / ×)
(2) 레오플드는 인간의 도덕적 의무가 흙, 물, 동물, 식물은 물론 생태계 그 자체에도 적용 된다고 본다.	(○ / ×)
(3) 테일러는 자신의 고유한 선을 지닌 존재들은 인간의 이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 ×)
(4) 테일러는 생명체의 가치 위계를 정하는 유일한 경계선이 자율성의 유무라고 본다.	(○ / ×)
(5) 레건과 레오플드와 달리 칸트는 인간이 생명이 없는 것일지라도 함부로 파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 / ×)
(6) 레오플드는 개별 생명체의 존속이 공동체 전체의 보전과 상충하면 공동체 전체의 보전이 우선한다고 주장한다.	(○ / ×)
(7) 칸트와 달리 레건과 레오플드는 모두 도덕적 고려 대상이 도덕적 행위 능력과 무관하게 결정된다고 본다.	(○ / ×)
(8) 레건과 레오플드는 모두 동물 학대 금지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근거한다고 주장한다.	(○ / ×)
(9) 레건과 달리 싱어는 일부 동물이 다른 존재의 이익과 독립해 개별적 복지를 추구한다고 주장한다.	(○ / ×)
(10) 레건은 삶의 주체가 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존재들은 다른 개체를 위한 자원으로 대우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 / ×)

— M E M O —

정답표

단원명	정답	단원명	정답
과학 기술 윤리	01~10:OXOXO OXOXX 11~20:OX야스퍼스OX XXOXO 21~30:XXOXO OXOXO 31~38:XXXXO XOXO	자연과 윤리	01~10:XOOOO XOXOO 11~20:OXXOO OXXXXO 21~30:OXOXO XXOXO 31~40:OOXOX OXOXO 41~50:OOOXX OOOOO 51~60:XOOOX OOXOO 61~69:OOOXX OOOX

쪽수	정답			
278쪽	① 야스퍼스	② 요나스	③ 하이데거	④ 요나스
279쪽	① 하이데거	② 하이데거	③ 요나스	④ 베이컨
280쪽	① 요나스	② 베이컨	③ 요나스	④ 요나스
281쪽	① 베이컨	② 요나스	③ 베이컨	④ 베이컨
282쪽	① 요나스	② 요나스	③ 칸트	④ 싱어
283쪽	① 레건	② 싱어	③ 싱어	④ 테일러
284쪽	① 슈바이처	② 레오플드	③ 네스	④ 레건
285쪽	① 싱어	② 테일러	③ 테일러	④ 슈바이처
286쪽	① 데카르트	② 아리스토텔레스	③ 테일러	④ 데카르트
287쪽	① 아퀴나스	② 테일러	③ 레오플드	④ 네스
288쪽	① 레오플드	② 테일러	③ 레건	④ 레건
289쪽	① 레오플드	② 싱어	③ 레오플드	④ 슈바이처
290쪽	① 칸트	② 싱어	③ 칸트	④ 레오플드
291쪽	① 칸트	② 아리스토텔레스	③ 레오플드	④ 칸트
292쪽	① 테일러	② 레건		

쪽수	정답	쪽수	정답
293쪽	X X O O O O X X X X	294쪽	O X O X X X X X O O
295쪽	X X O O X O X O O O	296쪽	O O O X O O O X O O
297쪽	O O O O X O X O X O	298쪽	O O X X O O X O X O
299쪽	X X X O X X O O O X	300쪽	X O X X X O O O X O
301쪽	X O X O O X O O O X	302쪽	X X O X X O O O X X
303쪽	O X O O X O O X X X	304쪽	O X X O O O O O O O
305쪽	O X X O O O O X O O	306쪽	O O O O X O X X X X
307쪽	X O O O O O X O O X	308쪽	O O O O X O X X O O
309쪽	O X O O O O O X O O	310쪽	O X X X X O O X O X
311쪽	X X O O X O O X X X	312쪽	X O O O O X O X O X
313쪽	X O X O X O X X O X	314쪽	X X X O O X X O X X
315쪽	O O O O X X X X O X	316쪽	O O X O O X X O O O
317쪽	O O O O X X O X X O	318쪽	X O X X O X O O O O
319쪽	X O X O X O X O X X	320쪽	O X O O X O O O X O
321쪽	O O X O X X X X X O	322쪽	X O X O O X X O O O
323쪽	O O X X X X O O X O	324쪽	X O X X O O O X O O
325쪽	O O O X O O O X O O	326쪽	O X O O O X X O O O
327쪽	X X O O X X O O X O	328쪽	O O O O X O X O O X
329쪽	O O O X O O X O X O	330쪽	O O X X X O O X X O